

2025 NO.48

스리그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마가복음 1:17



그림 | 송미리 집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발자취

글 | 박은진 집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매년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부활주일인 18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서울영동교회 원로이자 에스라 성경대학원 총장이신 정현구 목사님(월·화), 높은뜻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수),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목·금)께서 섬겨주셨고, 부활주일인 18일에는 우리 교회 고성제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고난과 부활의 진리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주말을 앞두고 아이들까지 참석해 가족 단위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참석자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그 말씀의 은혜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 말씀 요약 + QR코드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그날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4월 14일 첫째 날 | 정현구 목사

• "향기나는 사랑" 마 26:6-13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베다니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고, 이를 알아챈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사랑의 섬김을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고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인의 낭비는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행위를 복음과 함께 전해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칭찬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게 되고, 이조차도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죄인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진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월 15일 둘째 날 | 정현구 목사

• "십자가에 오르시다" 마 27:27-31, 요 12:31-33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공생애로 3년을, 마지막 3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에게 천국의 처소를 약속하셨지만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하신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황제의 즉위식처럼 묘사하며 고난을 통해 왕 되심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표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통해 죄와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4월 16일 셋째 날 | 이장호 목사

• “죽어야 맺는 생명 열매” 요한복음 12:24-26



하나님은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여는 영적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오셔서 섬김과 겸손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총의 도구로 삼으시며, 십자가를 통해 죄와 교만을 무너뜨리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 환대를 통해 마음의 질서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종려주일,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채찍과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강하게 임하여 새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어떤 가치로 살아갈지를 물어야 합니다.

4월 17일 넷째 날 | 정갑신 목사

•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승리” 욥기 16:19-22, 19:25-27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욥기는 ‘착한 사람의 고난’이 아닌,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진자로 만나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변수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 고난이나 절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며, 모순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고난, 십자가 사이의 모순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순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4월 18일 다섯째 날 | 정갑신 목사

• “십자가 고통을 넘는 신자” 누가복음 23장 39-43절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배우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증오와 분노를 낳지만 그것을 이기는 힘은 복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고통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세상의 원리를 깨뜨리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옆 강도처럼, 은혜의 각성은 짧은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고통은 언제나 내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지만, 은혜의 각성을 통해 그 고통은 용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칼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혁명입니다.

4월 20일 부활 주일 | 고성제 담임목사

• “나였다면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누가복음 24장 13-35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 대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이나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읽으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은 말씀 안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Family of God!

글 | 최미영 집사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

'부활의 빛'이란 이름 아래 강혜원, 전하윤 어린이의 소개로 전세대 찬양예배의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 예배는 하늘 가족인 방글라 교회 식구들도 함께했기에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환영 인사를 하였습니다.

학령 전 어린이들인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찬양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간, 가장 순수한 본연의 모습으로 '콩콩콩 쿵쿵쿵, 흔들흔들 싹룩싹룩!' 최선을 다해 찬양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활짝 웃고 계실 예수님의 미소가 그려집니다.



전세대 찬양예배의 취지에 걸맞게 유치부 어린이부터 청·장년 성도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안산에서 온 조이 방글라 교회 식구들은 우리를 세대에서 세대로, 한 나라에서 세계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소리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찬양의 장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아판 바로이 목사님께서서는 전세대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음을 나누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한 가족임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 예배하고
안으로 사랑하며 밖으로 선교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hundor E: Dine! (순돌 에이 다네)

이 아름다운 날에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3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은 예수님의 빛으로 씻겨 나갑니다.

죄인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축복주신 주님 찬양하리

We are family of God!

새순의 숨은 일꾼

사랑의 주차 섬김이

글 | 양민이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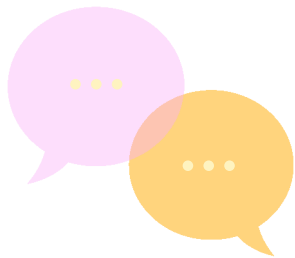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는 길, 가장 먼저 성도님들을 환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더위도, 강추위도 이겨내시며 주차봉사로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귀한
주차봉사위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뒷편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주일 아침 교회에 갈 때 가장 먼저 반
갑게 맞아주시는 따뜻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봉사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기준,
박종환, 안보균, 정의원, 한창엽, 홍준상 집사님 이십니다. 1부 예배가 끝나면 민백초등학

교로 달려나와 교회로 오는 식구들의 차량들을 질서정연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
는 안되는 귀한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주차봉사위원장이신 안보균 집사님께서 벌써 12년째, 다른
분들도 거의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
란다는 당부를 전해주셨습니다. 야외에서 봉사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을 것 같은데 "봉사로 하는 일인데 고충이랄게
있나요~허허허" 하고 웃으시는 밝은 미소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서로 섬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의 모습
이 겹쳐져 추운 날씨에도 마음 저편부터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한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져 여섯 분의 집사님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가정과 직장위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순의 슈바이처 김광호 장로님을 만나다

글 | 이정희 집사

새순교회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분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기획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안에서 살아 가는 삶'을 담아보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새순교회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김광호 장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언제였나요?

A1.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서 부흥 집회에 다닌 기억이 있고, 그리고 유초등부 시절이 있었지만 별로 기억에 남은 것은 없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여름, 겨울 방학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겨울엔 찬양 발표 준비, 여름엔 회지 발간 등으로...

교회 교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초등부 보조교사 하면서 시작하였고, 그 후 의대 본과 다닐 때 빼고는 계속 중고등부교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Q2. 의료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군 제대 후, 의사가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Q3. 의사로서 매일 환자를 대하면 피로감이나 부담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시나요?

A3.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오시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알려 주세요

A4. 제가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많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어 가능한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제가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Q5.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5. [누가복음 17장 7-10절]

- 7.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 8.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 9.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 10.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 16.항상 기뻐하라
- 17.쉬지 말고 기도하라
- 18.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Q6. 마지막으로 새순 성도님들께 신앙의 격려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A6. 제가 감히 새순성도님들에게 격려메시지를 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좋고, 오히려 많이 부족한 자를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삭과 함께 봄봄봄

글 | 송미리 집사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이삭전도회가 주최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는 봄나들이 괴산 산막이길 산행이 있었습니다.

6시 50분부터 79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행운권추첨을 하고, 선물, 간식꾸러미를 받고 7시 30분에 버스 2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괴산에 도착하여 산막이옛길 한 바퀴 산행을 한 뒤, 유람선을 타고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돌아와 가마솥손두부집에서 직접 만든 손두부가 들어있는 전골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진천 대형수족관 아쿠아리움과 초원의 집도 둘러 보고 송골전통집에서 산채보리밥으로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 먹고 교회에서 해산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교우들을 위해 봄나들이 산행을 기획하고 수고해주신 이삭전도회 분들과 찬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

은혜의 자리 홍치열

글 | 최정아B 권사



◀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기에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곡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낮은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라 여겨질 수 있는 순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오히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노래합니다.

'나를 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위함이에요'라는 가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더욱 친밀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가사는 지금 이 순간 현실의 고난과 시련 속에 힘겹게 버티는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해 줍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를 넘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그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인생길에서 '은혜의 자리'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다시 그 길 위에 서다

글 | 서지혜 권사



책장의 먼지를 털다가 문득 오래전 읽었던 필립 양시 목사님의 책 "기도"가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마다 줄이 그어져 있고, 별표가 찍혀 있는 것을 보니 과거의 내가 얼마나 이 책을 진지하게 읽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청소는 뒷전이었고 소파에 앉아 다시 책장을 넘겼다.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더 깊이 나는 그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책 초반에 등장하는 한 인물,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조나단 에이트켄의 신앙 고백은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하나님을 은행장처럼 대했다. 정중하게 말하고, 가끔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때때로 작은 호의나 초과 인출을 요청하고, 그의 도움에 대해 건성으로 감사하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의 고백은 마치 내 기도 생활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의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내 기도는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청과 응답이라는 기능적 시스템에 가까웠었다. 그의 고백에 너무 깊이 공감한 나머지 얼굴이 화끈거리듯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올랐다.

나는 다시 책을 펼쳤고, 마치 현미밥을 꼭꼭 씹듯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읽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곳은 산의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Bear Creek이라는 작은 시냇물은 빗방울이 모여 흐르고,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는 자연의 순리를 보여준다. 그 물결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기도를 마치 내 작은 관심사와 소망을 상류의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기도는 반대였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로 흘러오는 것이어야 했다.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들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렸다.”

필립 양시 목사님이 살았던 덴버, 콜로라도는 내가 유학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그가 묘사한 Bear Creek의 풍경은 내 기억 속 어느 날의 햇살, 냇물, 공기와 겹쳐졌다. 시간과 공간이 포개지는 듯한 묘한 위로가 밀려왔고, 그의 사유와 나의 경험이 어딘가에서 맞닿는 것 같은 친밀함이 느껴졌다.

책을 읽으며 떠오른 또 다른 기억이 있다. 언젠가 들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중에 그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 큰아들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다.

겉으로는 충성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와 마음이 닿지 않았던 큰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기도는 하되,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있는 우리.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과도 그렇게, 그분 자체로 기뻐하며 이야기하고 싶었다. 밤을 지새우며 수다를 떠는 친구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더 늦기 전에 나만의 기도 골방, 기도의 지성소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진지하게 따라가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책이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이 책은 조용히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기도를 다시 배우게 해준 스승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 거울이었으며, 그분께 향하는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해준 나침반이었다.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제 나는 그 길 위에, 다시 서려고 한다.